

# POLICY BRIEF 2023

2023. 07. vol.63

2023  
정책브리프

2023 전라북도  
행복지표 현황

※ 이 자료는 기본과제로 수행한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축과  
도민행복 실태연구”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www.jthink.kr](http://www.jthink.kr)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위원  
연구진 | **이중섭** 연구위원  
**김현수** 전문연구원

I 연구배경과 목적

-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부의 증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국가의 발전 정도나 국민의 복지 수준을 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성장과 개발중심의 국정운영이 2006년 OECD 국가행복지수와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등의 발간으로 국민의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행복지표 연구는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행복지표는 국가나 지역 등의 공동체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지표로 경제적인 부의 증대와는 별개로,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행복감을 측정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 행복지표 연구는 개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측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라북도는 2017년 처음으로 도민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한 이후 2020년에 두 번째 행복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3년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개선과 새로운 행복지표의 제시 및 현황 조사를 통한 도민의 행복정도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23 행복지표 연구는 도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여 행복지표가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 방향〉



## II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

- 2023 전북형 행복지표체계 구성은 어느 지역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 행복도의 측정을 통해 타시도와 행복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능성, 시대적 특수성과 지역적 이슈를 반영한 지역특수성을 기준원칙으로 설정함
  - 보편성은 행복정도를 알 수 있는 측정가능 한 지표에 관한 사항으로 UN, OECD 등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제로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행복영향요인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원칙임
  - 비교가능성은 전라북도민의 행복현황이 분야별로 타시도에 비해 어느 수준에 와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지역성은 행복도를 측정하는 시대에 특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지역고유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요함
- 2023 전북형 행복지표는 정서적 행복감, 경제, 사회적 관계, 가족, 문화여가, 건강, 복지, 안전, 환경, 주거, 교육 11개 분야로 구성함
  - 타 시도 행복지표에 교육 분야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전북행복지표에 교육 분야가 문화여가와 사회적 관계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함
  - 기존 지표가 통계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지표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명확하게 구분함
  - 전북만의 지역성과 특성을 가진 지표는 '가족'으로 타 시도 행복지표와 다르게 단독적인 행복분야로 설정함

〈2023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

분야	통계지표		현황조사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정서			· 행복정도 · 나의가치 · 미래에 대한 희망
경제	· 고용안정성 · 소득만족도 · 직업만족도 · 좋은 일자리 인식 · 주관적 소득수준 · 계층의식 · 계층이동성	·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 소비자 물가지수 · 고용률 및 실업률	· 고용안정성 · 소득만족도 · 직업만족도
사회적 관계	·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 이웃에 대한 신뢰도 ·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 친구관계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	· 자원봉사 참여율 · 부모부양태도	·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 이웃에 대한 신뢰

분야	통계지표		현황조사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가족	· 가족관계만족도	·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 가족관계 · 가족과의 접촉 · 가족의 건강
문화 여가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일과 여가의 균형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예술행사 만족도	· 여가활동 빈도 ·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 문화여가시설 수 · 문화여가비용	· 문화여가활동 · 일과 여가의 균형 · 문화시설 및 혜택
건강	· 건강만족도 · 스트레스정도	· 건강관리실천 · 의료시설 수 · 의료서비스 이용률	· 건강만족도 · 스트레스 관리정도 · 의료서비스만족도
복지	· 사회보장 만족도 · 노후준비정도	· 자살충동정도(자살률) · 복지서비스만족도 · 보육시설만족도 ·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 복지시설 만족도 · 사회보장 만족도 · 노후준비정도
안전	·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범죄 안전등급 · 지역안전등급 · 범죄 검거율	· 범죄로부터 안전 ·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 · 안전시설
환경	· 공원/녹지공간 접근만족도 · 환경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체감환경만족도 · 환경문제인식 불안도	·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 미세먼지	· 공원 및 녹지 접근성 · 대기만족도 · 생활폐기물 처리
주거	· 주거환경 만족도 · 주택만족도	· 대중교통접근성	· 내 집 마련의 가능성 · 주거환경 · 주거비용
교육	· 학교생활만족도 · 교우관계만족도 · 교사와의 관계만족도 · 교육기회충족도 · 교육비부담인식	· 학교개수 · 대학개수 · 평생학습참여율 · 문해능력수준별인구	· 교육시설 · 교육비용 · 교육의 질

자료: 김동영(2023).

### III 2023 전라북도 행복 현황

#### 1. 조사개요

-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4개 시군의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함
  - 전북연구원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1단계 온라인 조사를 통해 454명을 조사하였고, (주)지알아이리서치를 통해 14개 시군별 부족한 쿼터에 대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179명, 오프라인 367명을 조사함
  - 표본은 14개 시군, 연령, 성 등 3단계 할당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함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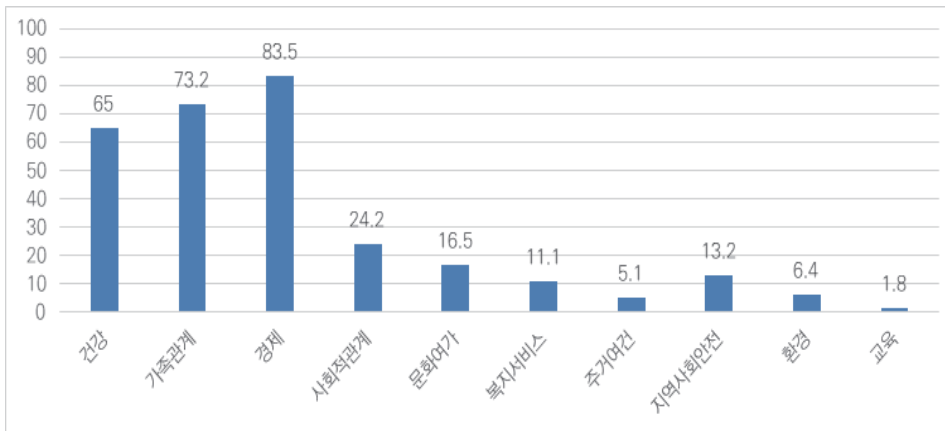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3년 1월 30일(월) ~ 2023년 2월 17일(금)
조사대상	전라북도 14개 시·군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
표본수	총 1,000명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조사
표본추출방법	할당표집방법(Quota Sampling Method)

**2. 전북도민 행복현황**

- 전북 도민이 인식하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3순위 종합)은 1순위 경제(83.5%), 2순위 가족관계 (73.2%), 3순위 건강(65.0%) 등 순으로 9순위 주거여건(5.1%), 10순위 교육(1.8%) 순으로 나타남
  - 전북도민 행복영향 요소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 항상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가족공동체기반의 전라북도의 사회적 특질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가족의 행복과 본인의 행복을 일치시키는 전북도민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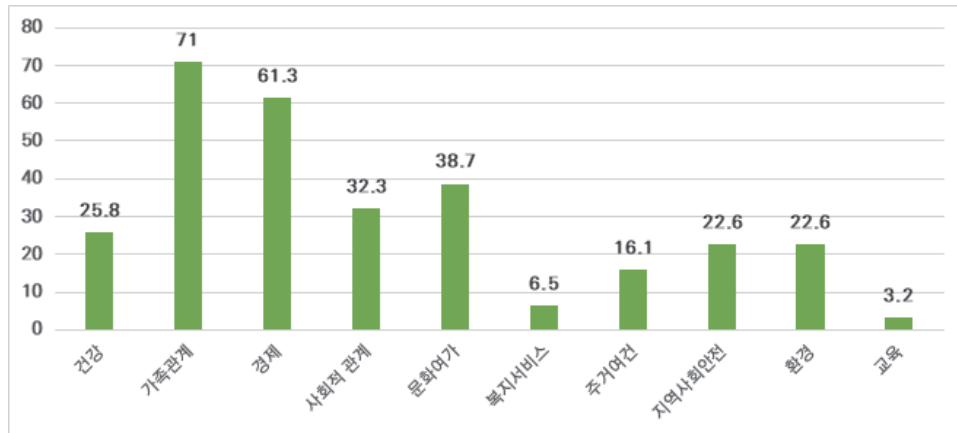


자료: 김동영(2023).

- 전북도민의 현재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1순위 가족관계(71.0%), 2순위 경제(61.3%), 3순위 문화여가 (38.7%) 등 순이었고 8순위 주거여건(16.1%), 9순위 복지서비스(6.5%), 10순위 교육(3.2%) 순임
  - 전라북도의 1인당 GRDP는 30,912천원(2021년 기준, 통계청)으로 도지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준이 낮지만 경제적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객관적 경제수준과 경제적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가장 만족하는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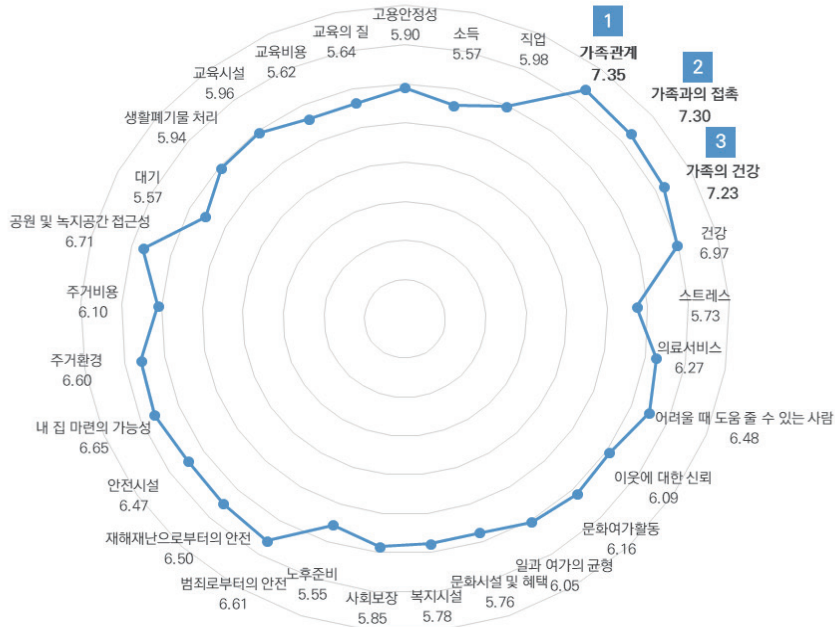


자료: 김동영(2023).

- 전북도민의 행복도<sup>1)</sup>에서 가장 취약한 지표는 남성은 교육, 여성은 경제, 1인·4인 가구는 복지, 2~3인 가구는 경제 등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교육(5.78점), 여성은 경제(5.56점)가 가장 낮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18~20대와 60대 이상은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30~40대는 교육, 50대는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은 경제, 200~400만원 미만은 복지, 400만원 이상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가구별로는 1인 가구와 4인가구는 복지, 2~3인 가구는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지역에 따라서는 중추도시권과 동북권, 동남권은 복지, 새만금권과 서남권은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전북 행복지표의 세부지표 별로 주관적 만족감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등 가족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으로 높고, 노후준비와 교육에 대한 만족이 낮음
  - 가족관계(7.3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가족과의 접촉(7.30점), 가족의 건강(7.23점) 순으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건강(6.97점), 공원 및 녹지 공간 접근성(6.71점), 내 집 마련의 가능성(6.65점), 범죄로부터의 안전(6.61점), 주거환경(6.60점),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6.50점)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6.48점)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만족감이 낮은 세부지표는 노후준비가 5.55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대기환경과 소득(5.57점), 교육비용(5.62점), 교육의 질(5.64점) 등 순임

1) 행복도 : 행복지표 세부지표 별 만족도로 최저 0점 ~ 최고 10점 범위의 응답결과를 산술평균한 값

〈세부지표별 주관적 만족감〉



자료: 김동영(2023).

- 경제 세부지표의 만족도를 도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용안정성과 소득이 높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가 있을 때와 1인 가구보다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족관련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종일 때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음
- 건강 만족도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는 40대보다 18~20대와 60대 이상의 스트레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건강, 스트레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다가 400만원이 넘어가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으며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세부지표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문화여가 세부지표 만족도가 높았고, 30대보다 18~20대, 60대 이상의 문화여가활동과 문화시설 및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복지서비스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60대 이상, 배우자가 있을 때, 2인 가구, 서남권과 새만금권 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 2023 전라북도 행복지표 현황

- 지역사회 안전분야는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고, 배우자가 있을 때, 200만원 미만보다 400만원 이상일 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만족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30대보다 50대, 18~20대,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개인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보다 400만원 이상일 때 만족도가 높음
- 주거여건은 공통적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 개인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일 때 주거여건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일 때 다른 가구 수 일 때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환경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0대 보다 60대 이상과 18~20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보다 2~3인 가구의 환경 세부지표 만족도가 높음
- 교육만족도에서 교육시설 만족도는 30대보다 18~20대,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비용 만족도는 400만원 이상보다 200~300만원 미만 일 때, 1인, 4인 가구보다 2~3인 가구 일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의 질은 30대 보다 18~20대, 60대 이상일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분야별 세부 행복지표 현황〉

구분	경제			가족관계			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안전			주거여건		환경			교육						
	고용 안정성	소득	직업	가족 관계	가족과의 접촉	가족의 건강	건강	스트레스	의료 서비스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한 신뢰	문화여가 활동	일과 여가의 균형	문화 시설 및 혜택	복지 시설	사회 보장	노후 준비	범죄로부터의 안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안전 시설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주거 환경	주거 비용	공원 및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	대기	생활 폐기물 처리	교육 시설	교육 비용	교육의 질	
전체	5.90	5.57	5.98	7.35	7.30	7.22	6.97	5.73	6.27	6.48	6.09	6.16	6.05	5.76	5.78	5.85	5.55	6.61	6.50	6.47	6.65	6.60	6.10	6.71	5.57	5.94	5.96	5.62	5.64	
성별	남	6.14	5.77	6.28	7.42	7.31	7.20	7.04	5.90	6.38	6.49	6.13	6.34	6.19	5.86	5.92	6.01	5.72	6.87	6.74	6.65	6.78	6.69	6.25	6.80	5.68	6.07	6.05	5.64	5.65
	여	5.65	5.37	5.67	7.29	7.29	7.25	6.89	5.56	6.17	6.48	6.05	5.99	5.91	5.66	5.65	5.69	5.38	6.36	6.27	6.28	6.51	6.50	5.94	6.61	5.46	5.81	5.86	5.60	5.62
연령	18~20대	5.96	5.39	5.97	7.08	7.18	7.06	7.43	5.95	6.47	6.46	5.87	6.44	6.51	6.22	6.09	6.50	5.49	6.70	6.64	6.64	5.80	6.24	5.82	6.75	6.13	6.42	6.22	6.07	5.98
	30대	5.72	5.26	5.72	7.22	7.20	7.11	6.79	5.15	5.77	6.24	5.18	5.50	5.44	4.97	5.07	5.02	4.74	6.25	5.82	5.87	5.78	5.80	5.12	5.74	4.34	5.03	4.90	4.56	4.63
	40대	5.87	5.54	6.23	7.41	7.34	7.01	6.69	5.44	5.93	6.34	5.89	5.75	5.75	5.20	5.18	5.28	5.14	6.45	6.22	6.14	6.66	6.58	5.95	6.43	5.15	5.50	5.38	5.00	4.99
	50대	5.86	5.62	5.99	7.59	7.39	7.37	7.04	5.58	6.06	6.38	6.01	6.17	5.93	5.67	5.53	5.61	5.40	6.60	6.55	6.39	6.78	6.79	6.24	6.84	5.18	5.77	5.91	5.25	5.51
	60대 이상	5.96	5.74	5.93	7.35	7.31	7.35	6.92	6.03	6.63	6.69	6.61	6.44	6.26	6.13	6.29	6.23	6.10	6.78	6.77	6.77	7.20	6.90	6.52	7.05	6.13	6.34	6.48	6.25	6.18
배우자 유무	있음	6.00	5.73	6.13	7.50	7.43	7.38	7.06	5.84	6.38	6.61	6.28	6.21	6.10	5.82	5.83	5.87	5.78	6.74	6.61	6.57	7.06	6.88	6.37	6.87	5.61	5.98	6.03	5.67	5.69
	없음	5.62	5.18	5.58	6.98	6.97	6.84	6.74	5.45	6.00	6.15	5.61	6.04	5.93	5.60	5.66	5.80	4.97	6.29	6.24	6.21	5.60	5.91	5.42	6.29	5.48	5.85	5.77	5.48	5.52
개인 월소득	200만원미만	5.14	4.95	5.20	7.21	7.15	7.08	6.65	5.46	6.09	6.30	6.06	5.97	5.83	5.69	5.73	5.78	5.37	6.29	6.27	6.30	6.33	6.27	5.86	6.51	5.54	5.95	5.90	5.61	5.69
	200~300만원미만	6.15	5.57	5.98	7.40	7.33	7.28	7.20	6.09	6.46	6.56	6.06	6.24	6.32	5.86	5.93	6.09	5.54	6.63	6.50	6.46	6.45	6.52	6.06	6.75	5.84	6.18	6.16	5.88	5.78
	300~400만원미만	5.92	5.73	6.23	7.28	7.20	7.15	6.97	5.52	6.13	6.58	6.31	6.29	5.97	5.65	5.86	5.90	5.44	6.72	6.56	6.45	6.87	6.77	6.03	6.73	5.33	5.70	5.94	5.57	5.67
	400만원이상	6.69	6.39	6.94	7.58	7.55	7.44	7.14	5.83	6.43	6.57	5.98	6.24	6.09	5.69	5.63	5.59	5.93	6.99	6.82	6.74	7.21	7.06	6.57	6.93	5.46	5.83	5.78	5.32	5.34
가구원수	1인 가구	5.32	5.08	5.46	6.64	6.61	6.57	6.26	5.18	5.70	5.82	5.30	5.59	5.52	5.18	5.39	5.32	4.76	5.86	5.90	5.95	5.81	5.88	5.44	6.14	5.02	5.35	5.51	5.12	5.20
	2인 가구	6.03	5.73	5.93	7.57	7.45	7.46	7.17	6.04	6.61	6.81	6.50	6.46	6.41	6.18	6.18	6.17	6.01	6.88	6.68	6.66	7.01	6.87	6.47	6.96	5.83	6.19	6.19	6.01	5.92
	3인 가구	5.90	5.69	6.04	7.26	7.19	7.15	7.05	5.77	6.25	6.48	6.11	6.24	6.06	5.85	5.91	6.03	5.73	6.64	6.58	6.53	6.70	6.60	6.18	6.70	5.78	6.17	6.17	5.81	5.88
	4인 가구 이상	6.03	5.51	6.19	7.59	7.60	7.39	7.00	5.63	6.24	6.46	6.03	6.03	5.92	5.51	5.41	5.55	5.25	6.67	6.52	6.43	6.62	6.68	5.94	6.72	5.32	5.72	5.69	5.23	5.27
지역	중추도서관(전주, 익산, 완주)	5.90	5.59	6.02	7.30	7.28	7.22	6.99	5.65	6.35	6.45	5.97	6.17	6.06	5.76	5.73	5.75	5.50	6.61	6.53	6.44	6.53	6.60	5.97	6.68	5.34	5.86	5.98	5.48	5.57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5.88	5.65	5.86	7.47	7.34	7.15	6.96	5.80	6.20	6.68	6.26	6.09	6.12	5.88	5.93	6.01	5.89	6.57	6.38	6.54	6.91	6.68	6.41	6.77	5.73	6.07	6.08	5.88	5.79
	동북권(우주, 진안, 장수)	5.73	5.00	5.88	7.10	7.10	7.20	6.39	5.51	5.78	6.07	6.34	5.98	6.10	5.37	5.78	5.90	4.59	6.54	6.39	6.17	6.66	7.05	6.24	7.02	6.15	5.63	5.32	5.73	5.24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5.98	5.46	6.09	7.60	7.37	7.32	7.16	5.62	5.94	6.37	6.07	5.86	5.70	5.32	5.33	5.51	5.42	6.81	6.81	6.58	6.64	6.21	5.91	6.65	6.16	6.25	5.83	5.57	5.64
서남권(정읍, 고창)	5.93	5.64	5.94	7.31	7.35	7.39	6.89	6.22	6.52	6.48	6.35	6.62	6.10	6.02	6.12	6.34	5.58	6.61	6.39	6.47	6.74	6.56	6.21	6.62	5.81	6.03	5.96	5.78	5.87	
직업	공무원	6.91	5.79	6.78	7.73	7.55	7.57	7.34	6.12	6.26	6.60	5.78	6.16	6.01	5.51	5.49	5.71	6.00	7.08	6.61	6.57	6.60	6.81	6.01	6.77	5.79	6.26	5.90	5.22	5.38
	사무직	6.27	5.69	5.94	7.51	7.37	7.19	7.06	5.90	6.25	6.59	6.19	6.29	6.24	6.00	5.95	6.02	5.52	6.65	6.57	6.46	6.56	6.60	6.05	6.72	5.50	5.81	5.96	5.61	5.70
	생산유통서비스직	6.13	5.78	6.17	7.23	7.37	7.38	7.11	5.84	6.61	6.69	6.31	6.29	6.06	5.76	5.87	5.93	5.52	6.83	6.65	6.81	6.96	6.79	6.38	7.05	6.17	6.52	6.29	5.95	5.86
	자영업	6.16	6.00	7.09	7.75	7.64	7.36	7.16	5.68	6.28	6.78	6.07	6.22	6.36	5.60	5.52	5.56	5.54	6.78	6.71	6.47	7.07	6.82	6.39	6.72	5.03	5.33	5.72	5.46	5.42
	전업주부	5.90	5.78	6.18	7.41	7.15	7.18	7.02	5.90	6.29	6.30	6.06	6.11	6.13	5.89	6.04	6.02	5.70	6.73	6.72	6.58	6.75	6.58	6.12	6.55	5.69	5.88	5.85	5.64	5.85
	전업주부	5.28	5.22	5.27	7.20	7.23	7.26	6.64	5.60	6.20	6.47	6.36	5.99	5.88	5.83	5.86	5.87	5.66	6.62	6.46	6.46	6.87	6.66	6.12	6.77	5.58	6.09	6.25	5.84	5.88
기타	4.96	4.94	5.09	6.92	6.92	6.83	6.59	5.22	5.98	5.94	5.65	5.99	5.67	5.52	5.54	5.67	5.22	5.90	5.94	5.95	5.88	6.08	5.64	6.28	5.15	5.65	5.59	5.35	5.23	

1) 지표별 수치는 세부지표별 만족도로 최저 0점~최고 10점 범위의 응답결과를 산술평균한 값



## IV 정책적 시사점

### 1. 행복취약집단 집중관리

- 행복감은 주관적 지표로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특히 행복도가 낮은 연령이나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라북도민의 연령에 따른 현재 행복감은 50대(64.62점)가 가장 높고 이어서 18~20대(63.22점), 60대 이상(62.92점), 40대(62.56점), 30대(60.92점) 순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행복감은 40대(75.74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3.33점), 18~20대(72.89점), 50대(71.49점), 60대 이상(62.89점) 순임
- 전라북도 지역에 따른 현재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복감이 가장 높은 전북 지역<sup>2)</sup>은 중추도시권(63.89점), 동북권(62.31점), 새만금권(62.21점), 서남권(62.00점), 동남권(60.38점) 순인 반면, 10년 후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남권(71.36점), 중추도시권(69.72점), 새만금권(68.61점), 서남권(69.44점), 동북권(67.32점) 순임  
 - 중추도시권 : 전주, 익산, 완주 / 동북권 : 무주, 진안, 장수 / 동남권 : 남원, 임실, 순창  
 서남권 : 정읍, 고창 / 새만금권 : 군산, 김제, 부안
- 소득에 따른 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복감은 400만원 이상(65.92점)이 가장 높고, 300~400만원 미만(64.79점), 200~300만원 미만(62.48점), 200만원 미만(60.55점) 순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행복감은 300~400만원 미만(71.93점)이 가장 높고 400만원 이상(70.71점), 200~300만원 미만(70.56점), 200만원 미만(66.36점) 순임
-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와 10년 후의 전라북도민의 행복도는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과 동북권, 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약지표는 20~30대의 주거문제, 200만원 미만의 경제문제, 동남권, 동북권의 복지서비스 등은 행복취약집단별 가장 낮은 분야별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행복도의 개선을 위해 행복취약집단과 행복취약집단의 행복취약지표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외로움대응(정책)부서 신설검토

- 전라북도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추이를 2015년과 비교하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약 2.4%p 낮아졌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경우는 약 2.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5년에 비해 전북도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전북 지역 : 중추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 동남권(임실, 순창, 남원), 서남권(정읍, 고창),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 반면 전북의 자살충동정도는 2021년 기준 28.5%로 전국 평균(26.0%)보다 2.5%p 높고, 전북의 학교생활만족도는 41.5%로 전국평균(51.0%)보다 9.5%p 낮음
- 이처럼 도민의 행복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나 교우관계 등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은 전북도민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만남의 빈도가 줄어드는 환경에서의 사회적 공동체의 취약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은 2018년 외로움부서를 신설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천적 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문제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국민의 정신건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 전라북도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복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외로움대응(정책)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령자 자살률 및 1인가구 등의 외로운 집단에 대한 정책적 실천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김동영, 이중섭, 김현수(2023),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축과 도민행복 실태연구. 전북연구원

---

## Jeonbuk's Happiness Index 2023

Dong-yeong Kim, Jung-seop Lee, Hyeon-su Kim

Analyzing the happiness index is significant because it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pursuing both economic growth and welfare promotion, thus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Jeonbuk's Happiness Index 2023 is composed of 11 domains that encompass emotional well-being, economic well-being, social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s, culture and leisure, health, welfare, security, the environment, housing conditions, and education. Jeonbuk residents prioritize 11 domains: economic well-being (83.5%), family relationships (73.2%), health (65.0%), social relationships, culture and leisure, security, welfare, the environment, housing conditions (5.1%), and education (1.8%). In terms of domains from which residents derive the highest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s (71.0%) are at the top of the list, followed by economic well-being (61.3%) and culture and leisure (38.7%), while education (3.2%) is at the bottom of the list.

By age group, those in their 50s perceive themselves to be happier than other age groups (64.62 points), surpassing those between 18–20 years old (63.22 points), those over 60 (62.92), those in their 40s (62.56), and those in their 30s (60.92). Concerning happiness levels ten years from now, those in their 40s are ranked first (75.74 points), followed by those in their 30s (73.33), those between 18–20 years old (72.89 points), those in their 50s (71.49 points), and those over 60 (62.89 points). Additionally, more residents in the central region find happiness within themselves than those in other regions (63.89 points), followed by the northeastern (62.31 points), Saemangeum (62.21 points), southwestern (62.00 points), and southeastern regions (60.38 points). Regarding happiness levels ten years from now, the southeastern region is at the top of the list (71.36 points), preceding the central (69.72 points), Saemangeum (68.61 points), southwestern (69.44 points), and northeastern regions (67.32 poi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ubjective happiness based on monthly income, the rankings in descending order are as follows: over 4 million won (65.92 points), 3–4 million won (64.79 points), 2–3 million won (62.48 points), and less than 2 million won (60.55 points). Furthermore, in terms of happiness levels ten years from now, people with 3–4 million won are ranked at the top of the list (71.93 points), followed by those with over 4 million won (70.71 points), those with 2–3 million won (70.56 points), and those with less than 2 million won (66.36 points).

Whereas those in their 20s and 30s find housing conditions least satisfying, those whose monthly income is less than 2 million won are least satisfied with the economic conditions. In the southeastern and northeastern regions, welfare services were analyzed to be the most vulnerable domain.

Improving Jeonbuk's happiness index and achieving related policy objectives require close collaborations between the departments in charge to formulate domain-specific action plans. Moreover, customized strategies should be devised to manage vulnerable groups and areas with low happiness and the vulnerable domains of happiness in an effective and timely manner.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s in which the weakening of social networks among Jeonbuk's residents lowers their happiness levels, perceiving individuals' isolation and loneliness as social issues and approaching them from a public policy perspective is advisable.

**Key words** happiness index, Jeonbuk's Happiness Index 2023, improving quality of life



## Jeonbuk's Happiness Index 2023

Dong-yeong Kim, Jung-seop Lee, Hyeon-su Kim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